

부동의 자리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제11대 국회의원부터 제16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6선 의원의 고지를 점령했던 이한동 의원이 이제 그 자리를 젊은 당선자에게 내줘야 한다. 이철우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17대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포천시민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정도 부응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본지는 새인물 이철우 당선자의 프로필과 약력, 지나온 길 등을 정리하여 보도함으로써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제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이철우 당선자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 병폐를 직시한 히딩크와 그가 생각하는 축구를 충실히 따르는 무명의 태극전사들과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신화였습니다. 처음 히딩크는 5:0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때 만약 히딩크를 사퇴시켰다면 월드컵 4강 신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12일 193명의 아담의원들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우리의 정치 사회는 심각한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고 후진국의 낙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탄핵추진세력을 소중히 한 표 한 표로 심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주었습니다. 이제 지역당으로 전락한 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명분도 비전도 없습니다. 진정 거듭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포천·연천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없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50년 분단이 만들어낸 온갖 불합리한 사고들이 지배하던 지역이 지난 대선 을 갖점으로 우리 지역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남북화해와 부패정치의 청산, 경기북부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표심을 나타냈습니다. 합리적 개혁과 남북의 화해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경기북부는 더 이상 소외의 땅일 수 없습니다. 통일시대, 화해의 시대에 중심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 당선인사



통일국가의 운명적 땅입니다. 연천·포천이 그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국민은 옳았습니다. 수 천년 동안 나라가 진정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백성들은 온몸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전통이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이제는 통합과 민생안정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사리사욕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당선된 저는 첫째, 무엇보다 먼저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 가슴 속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례해집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이 달라도 예외의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백성의 모범이 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후보들의 지지자들과 화합하고 그 힘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삼겠습니다. 둘째, 생활정치, 주말정치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이를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며 지역교육을 생각하고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생각하고 우리지역을 통일시대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지역민을 만나고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생활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화합하고 이해하고 어려운 시대를 협동하며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해만 앞세우지 않으며 이웃의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의 기본을 삼겠습니다. 지지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4. 4. 16 17대 총선 연천·포천 선거구 당선자 이철우 올림

## 내 꿈은 유정회 국회의원

우리 동네는 포천(그 당시에는 연천이었다)에서도 가장 오지였다. 전기가 들어온 것이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날 무렵이었다. 전기공사가 끝나고 마을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군악대가 왔다. 국회의원 이 가운데 시고 군수, 면장, 마을 대표들이 한 줄로 섰다. 저녁 땅거미가 지고 어두워졌다. 군악대 파파리가 울리면서 점등식이 이루어졌다. 매일 등잔불에 익숙해있던 우리의 동공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섬광에 일순 충격을 받았다. 온 마을이 대낮같이 밝아졌다. 군악대는 신나는 노래를 연주하고 집집마다 30쪽 전구가 빛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국회의원 이 있었고 그는 일장 연설을 했다. 모두 환호했고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다. 그전에 국회의원 선거로 뽑아서 됐지만 유신헌법으로 1/3을 대통령 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이 있는데 이를 유정회 의원이라 했다. 어린 마음에 국회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데 선거에 나가는 것은 어렵고 유정회 의원은 교수나 그 외 다른 일 하는 사람 중에 임명된 것이라

쉽겠다 싶었던 모양이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유정회 의원이 되어 고향에 와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중학교 시절, 우리는 유



신의 세계에 살 수 밖에 없었던 그 꿈은 박정희 시대의 종말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할 것인가? **숫불다리미와 PHILIPS 다리미** 밥상을 차려주고 어머니는 내

## 이철우의 살아온 이야기

말이다. 25년을 살아온 내 상식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유난히 책임감을 좋아했던 나는 결심했다. '그래, 터부에 대해 알아보자.' 마르크스도 읽고 주체사상도 읽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경전도 훑어보았다. 어떠한 터부도 없다. 스스로 자유인임을 선언했다. 휴전선이 가까운 전방지역에서 25년간 나는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그로 인해 세상을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야 했다. 사회적 통념이 바뀐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갈등 속에 있다. 우리 사회는 작은 차이도 금방 적대감의 옷을 입는다. 미개한 사회일수록 taboo 가 많다. taboo는 어떤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통치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taboo 가 깨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아픔이 필요하다. 천동설을 지동설의 통념으로 바꾸는데 인간은 갈릴레이의 독백을 마셔야 했다.

## 목종예배

내가 살았던 감옥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김천교도소, 그리고 순천교도소 네 군데다. 물론 잊지 못할 남산 지하실에도 40일을 살았다. 그 40일은 40년만이나 긴 시간인지도 모른다. 지하실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의 기분은 새색시 시집가는 느낌이었으니 말이다. 서울과 안양은 미결수 때 있었기 때문에 임시거처다. 형이 확정



## 터부없는 세상을 위하여

대학에 갔을 때 온통 학원가는 광주학생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고 이를 규탄하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물론 나는 광주 폭도를 진압한 전두환을 허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상식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의 상식이 있었다. 광주는 민중항쟁이고 전두환은 살인자라는 상식

되고 김천 소년교도소에 갔다. 정치범이라 소년수도 아닌데 그곳에 수감되었다. 소년수들은 일반수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안 것도 그때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울까' 아무리 징역살이지만 아까운 시간을 허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공리 저공리 해보았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미결수 때부터 이미 소문이 나있는데 오히려 더 무뎠아 책만 읽다보니 무릎 관절

이 안좋아 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교도관에게 혹시 육종교회에서 청수도 하고 봉사하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았다. 사실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어찌하랴. 매일 책임가가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내 주장은 급기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보고되어 조건부 허락을 받았다. 교도관 2명과 함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2명 아니라 20명이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예배 중에 재소자들로 이루어진 '갈릴' 성가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나도 출소하면 성가대를 해야지' 하며 결심한 게 이때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 '죄인'들로 가득 찬 곳 교도소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리라 생각했다. 이후로도 매주 월요일이면 집회에 갔고 네 번인가 다섯 번째부터는 교도대도 따라오지 않아 혼자 갔다 오곤 했다.

## 금반지와 은반지

우리어머니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에는 늘 두 개의 반지를 끼고 나가신다. 평생시에는 그 흔한 가락지하나 끼시지 않는다. 아마 일하는데 불편하거나 반지가 닿는 게 아까워서 그러실 것이다. 그렇지만 대소 행사에는 반드시 반지 두 개를 가운데 손과 약지에 끼고 나가신다. 반지 하나는 루비가 박힌 금반지다. 또 하나는 어둡게 생긴 은반지다. 루비 반지는 내 동생이 육사 졸업 기념으로 해드린 아무나 걸 수 없는 반지다. 은반지는 내가 학생운동 하면서 졸업도 못했는데 동기들이 서울시립대라고 찍힌 은반지를 만들어주었다. 보잘 것 없는 반지다. 그러나 어머니 손에는 늘 두 개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어느 날 감옥에 면회를 오셔서 면회장 위에 올려놓으니 손에서 두 개의 반지를 처음 발견했다. '그래! 금이든 은이든 그것은 우리 어머니 손에서 모두 귀한 보석이고 똑같은 보물이다. 비록 처지는 달라도 이 땅 조국에서 나와 내 동생은 똑같이 귀중한 일꾼이요, 보배 아니겠는가? 이것을 어머니 손에서 깨달았다. 평생 일 밖에 모르던 그 손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와 은반지! 분단된 조국, 할 일 많은 조국에 우리 두 형제 그 반지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신다.

## 내 동생은 진짜 군인

세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 어려서부터 쌍둥이처럼 자랐다. 머리가 좋고 과묵한 아이였다. 동생이 미군이 되었을 때 오지라도 밖에는 거의 나를 따라다녔다. 언

제나 1등을 놓치지 않던 동생은 육군사관학교에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합격했다. 자신은 법대에 가고 싶었는데 가난이 그를 육사에 보냈는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도 군인 체질은 아닌 것 같았는데 임관하여 벌써 4~500명을 휘하에 둔 대대장이 되어 있다. 뒤늦게 대학에 가서 학 생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동생 때문에 3년을 두고 고민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투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 것인가? 이 생각으로 슬한 밤을 지새울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바로 갓 임관한 육군소위 내 동생이었다. 아마 그 때의 참담한 심정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투사의 길을 택하는 순간 너무나 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직, 투옥, 온갖 멸시, 가족의 고통... 이런 일들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다.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 대위 진급을 한 동생이 찾아왔다. 오히려 나보고 걱정 말라고 위로해 주고 갔다. 돌아서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메어 지던지...



세월이 흘러 지금은 모두 추억거리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우리 형제는 분단 조국의 아들로써 겪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동생은 지금 훌륭한 대대장이로 인정받으며 조국의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 형제가 조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 결코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마 우리 어머니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하며 더 큰 꿈을 군인은 가져야 한다. 4천만의 군대가 아니라 7천만의 군대로 통일을 대비한 군대로,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파수꾼이 되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 한 가운데 내 동생이 있을 때 모든 아픔을 다 겪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 중령 내 동생이 있다. 그는 진짜 군인이다.

## 정치는 합창단의 지휘자

매주 화요일이면 송우리엘 강다. 송우리 백합 미술학원 원장님이 마흔합창단의 주무이사고 남편인 박원장님은 합창단의 부단장이다.

## 이철우 프로필

- ▶생년월일 : 1960년 8월 9일(음)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204-1 (1982년까지는 연천군 관인면)
- ▶본 적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60
- ▶종 교 : 기독교
- ▶포천(연천) 중리초등학교 13회(73년) 졸업
- ▶포천(연천) 관인중학교 20회(76년) 졸업
- ▶포천(연천) 관인고등학교 5회(79년)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입학(1984년)
-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2001년 8월)
-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
- ▶반미청년회 학생부 지도위원(지역 1년6월 집우4년, 1989년 사면,복권)
- ▶월간 대학의 소리 대표
- ▶(주)영남 서울영역소 대리
- ▶민족해방 애국전선(지역 4년, 사면,복권)
- ▶작은학교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공동대표(1999년)
-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운영위원(1999년)
- ▶중리초등학교 운영위원장(1999년~2000년)
- ▶포천문인협회 사무국장(1999년~2000년)
- ▶포천문인협회 이사(2001년~현재)
- ▶포천 마흔합창단 단원(2001년~현재)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시찰 종교동부 연합회장(2000년~2001년)
- ▶중리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1999년~현재)
- ▶민중개혁국민연합 운영위원(2001년~2002년)
-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입학(1984년)
- ▶경기의회제2 운영위원(2001년~2002년)
- ▶임진강 수질보전 경기도 자문위원(2001년~2002년)
- ▶경기도 채색장 합동평가위원(2001년~현재)
- ▶한탄강 네트워크 사무처장(2000년~2003년)
- ▶법민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2002년~현재)
- ▶한탄강 백지화를 위한 3개군(연천, 포천, 철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영중중학교 운영위원장(2002년)
-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위한 북부비전21 공동대표(2003년)
-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2003년)
-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 운영위원(2003년)
- ▶저 서 : 동화집 백두산호랑이 포천문학 하
- ▶취 미 : 테니스, 연극관람(연출)
- ▶특 기 : 글쓰기